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4회차(천안)

일 시	2017년 05월 26일(금) 15:00 ~ 18:00
장 소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4(두정동 647), 공간사이(홍은빌딩 4층) 사이홈
참석자	총 37명(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30명, 충남도청 2명, 충남연구원 5명)

주 제	도시형 마을과 농촌형 마을의 협력방향
주요 내용	[1부] 천안시 마을만들기 동향과 네트워크 구축 현황 • 사례발표 :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설립과정과 현황 - 임영수 사무국장(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 사례발표 : 마을자원조사 경진대회 ‘대학생이 간다’ 사례 : 대평2리 - 2016 제1회 행복한 마을만들기 대학생 경진대회 최우수팀(단국대 너나들이)
	[2부] 도시형 마을과 농촌형 마을의 협력 방향 • 주제발표 : 도시형 공동체와 농촌마을,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방안 - 서정민 센터장(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3부] 쟁점 토론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동의 또는 반대, 그 이유는?) • 주요 내용 : ①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의 성격, 관계 ② 도농협력을 위한 민관협치의 조직체계 • 토론 방식 : 참가자 모두 발언 “1인 1분 발언” • 6대 쟁점 1) <u>도시형</u>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오촌 마을보다 <u>더 힘들다</u> 2) 도시농업 활성화(식물공장 등)는 농촌의 <u>농산물 판매를 방해</u>한다. 3) 대학생 <u>농활팀</u>이 마을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 없다. 4) <u>정보통신기술(ICT)</u> 발달은 농촌 마을에 도움이 된다. 5) <u>주민자치위원회</u>가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6) 행정 부서에 총괄하는 <u>지역공동체팀</u>을 신설해야 한다.
내용 요약	1. ‘도시형 마을과 농촌형 마을의 협력방향’ 제4회 대화마당 추진 개요 농촌 마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 확대로 공동체가 계속 붕괴되고 있다. 반면 읍과 동 지역은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도심 공동화와 상권 쇠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농촌 마을이나 도시 마을이나 현상은 다르지만 서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내용
요약

이런 측면에 주목하자면 우리는 동일 지역 내에서 공동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도농교류’가 하나의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서로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여지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5월 26일(금)에 천안에서 진행된 제4회 대화마당은 ‘도시형 마을과 농촌형 마을의 협력방향’이라는 주제로 추진되었다. 충남에서 가장 큰 도농통합 도시인 천안시에서 공동체지원센터의 동향과 네트워크 구축사례도 듣고, 같은 지자체 내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이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을지, 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2.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설립과정과 현황

천안시는 6개월 정도의 논의과정을 거쳐 2016년 1월에 지역경제과에 마을만들기 TF팀이 신설되었으며, 그 해 5월에 ‘천안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천안시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공동체지원센터는 2016년 8월부터 (사)함께이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공동체 발굴과 성장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중에 있다.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임영수 사무국장, 운영 사례 발표>

천안 센터는 ‘마을 현장이 답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다.

예를 들어,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마을 자원조사도 하고 마을 활성화의 아이디어도 제안하는 ‘대학생이 간다’ 경진대회가 대표적이다. 농촌 마을 유·무형의 자원조사와 더불어 천안 관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내용
요약

유도하여 대학과 마을간의 교류 및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14개 마을에 대한 자원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대학생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관심을 유발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14개 팀의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 사례로 ‘너나들이팀’이 선정되었다.

또 ‘찾아가는 마을마당’이라는 마을 리더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마을 가까이에서 역량강화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기술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추진하는 교육으로 보다 많은 마을 리더들을 만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천안시 행복한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대학생이 간다’>



<천안시 마을 리더육성교육 ‘찾아가는 마을마당’>

2017년에는 기존 활동과 더불어 ‘행복한 마을 학교’, ‘찾아가는 마을 담소 사업’, ‘마을 소식지(잡지) 발간’ 등을 통해 주민들과 더욱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나가고 있다.

천안 센터의 활동은 인구 60만의 도농통합시 특성을 잘 반영하여 도시의 장점을 농촌 마을과 잘 접목시키고 있다. 또 다양한 대상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화마당 참가자들은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3. 마을만들기 자원조사 경진대회, “그리고 물들다”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대학생이 간다’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너나들이’팀은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마을만들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사례지인 대평2리는 ‘가재와 반딧불이가 잡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시설 미비로 낮은 삶의 질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하수도 정비 등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복원’이라는 테마를 통해 물리적인 개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공동체를 복원 할 수 있는 활동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결합시켜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내용
요약



<‘대학생이 간다’ 너나들이 팀의 대평2리 마을조사와 개선 방안>

대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마을’은 하드웨어라는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간개발 계획에 있어서도 농촌스럽지만 도시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친환경 생태’ 공간이 주 설계의 테마였다.

농촌은 그곳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도, 또한 대학생들과의 접촉을 통해 도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참가한 대학생들도 소감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 그리고 다시 찾아가지 못한 미안함을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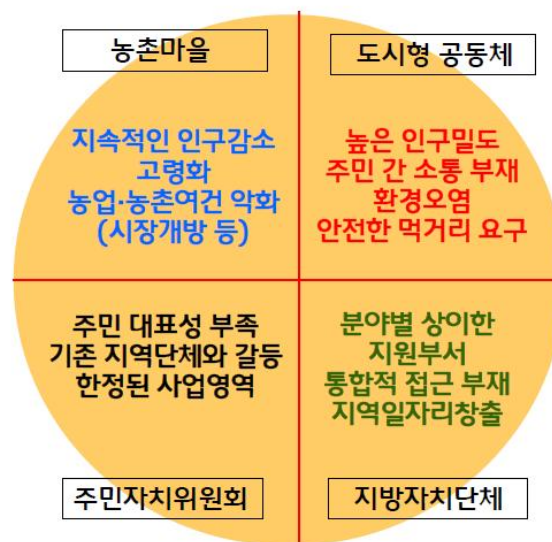
4. 도시형 공동체와 농촌마을,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방안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도농복합도시의 당면과제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도시형 공동체와 농촌마을,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방안

충남 마을만들기 대학마당

II. 도농복합도시의 당면과제



7

<도농복합도시의 당면과제 - 서정민 센터장 발표자료 발췌>

농촌 마을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 등에 따른 농업·농촌 여건 악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도시형 공동체는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간 소통 부재, 환경오염과 안전한 먹거리 요구 등의 현안 과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체단체는 분야별 상이한 지원부서로 통합적 접근이 부재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고민에 놓여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대표성 부족과 기존 지역단체와의 갈등, 한정된 사업영역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단위로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개발의 주체로서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제도로는 대표성과 위상이 약하지만 도시형 마을과 농촌형 마을을 연계·협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화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도시 공동체와 농촌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결핍 요소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도시형 공동체와 농촌마을,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방안

충남 마을만들기 대학마당

IV. 향후과제



11

<도시형 공동체와 농촌마을, 주민자치위원회 협력을 위한 향후과제
- 서정민 센터장 발표자료 발췌>

앞으로 도시형 공동체와 농촌마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단체와 행정이 ‘지역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우수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5.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6대 쟁점

이번 쟁점은 (1)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의 성격, 관계 (2) 도농협력을 위한 민관협치의 조직체계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6개를 도출하여 쟁점별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 1) 도시형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농촌 마을보다 더 힘들다.
- 2) 도시농업 활성화(식물공장 등)는 농촌의 농산물 판매를 방해한다.
- 3) 대학생 농활팀이 마을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 없다.
- 4)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농촌 마을에 도움이 된다.
- 5)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 6) 행정 부서에 총괄하는 지역공동체팀을 신설해야 한다.

(※ 자세한 쟁점토론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붙임 파일 참고)

내용 요약	첫 번째로 “도시형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농촌보다 더 힘든가?”에 대한 쟁점토론이 있었고 동의 7명, 반대 13명으로 나타났다. 농촌 특유의 계층구조 때문에 농촌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인간관계망이 취약한 도시적 특성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활동 성과가 축적되지 않는 도시형 마을만들기에 대해 많이 공감하게 되었다. 또 최근에는 농촌 마을도 주민들 성향이 도시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아 농촌 마을만들기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번째 쟁점은 “도시농업 활성화가 농촌의 농산물 판매를 방해하는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참여자들은 도시농업의 발달이 농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였지만, 도시농업에서 ICT를 활용한 식물공장 논의로 넘어가자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젊은 층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농업 경쟁력 향상에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 강했다. 하지만 식물공장이 늘어나면 농민층 다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세 번째 쟁점은 “대학생 농활팀 방문이 농촌에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참가자 대부분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측면을 강하게 포함하고 있기에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마을 활동이 활발한 곳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참가자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농활팀을 포함하여 문화공연팀, 재능기부자 등 마을을 방문하는 방식에 대해 ‘통과의례’를 거쳐 예의를 갖추어야 함도 강조되었다.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농촌 마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쟁점토론이 이어졌다.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10명으로 아니라는 의견 5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만 있지 실제로 그렇게 전개될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앞으로 농민들이 활용하기 쉽고 통제 가능한 적정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이 농민들에게 또 다른 투자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도시마을과 농촌마을이 혼재하는 대부분의 읍면에서 지역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 지역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대표성과 내부 역량, 제도적 측면 등에서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나타났다.
------------------	---

내용
요약

마지막으로 “행정에 마을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지역공동체팀을 신설해야 하는가?”라는 쟁점이 논의되었다. 여기에는 동의 16명, 반대 2명으로 지역공동체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많고 칸막이도 높지만, 마을 현장에서는 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행정 업무량에 맞는 인원수만큼 늘려준다면 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보조사업마다 목적이 다르므로 여러 부처별 사업을 1개 팀에서 총괄조정하기는 쉽지 않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으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제4회 대화마당(천안) 쟁점토론 진행 모습>

6대 쟁점별 토론에서 전체 주제인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의 협력방향”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도시와 농촌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관계가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 모두가 한마디씩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음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도시 마을이나 농촌 마을이나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상호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상생’의 방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조직들 간의 인간적 만남으로 서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깃거리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쟁점토론 설문조사 의견 정리¹⁾

쟁점토론 1 “도시형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농촌 마을보다 더 힘들다”

구분	동의 (7명)	반대 (13명)
기존 의견 (예시)	■ 도시는 마을도 없다. 특히 아파트는... ■ 주민들이 너무 많고 잘 모이지도 않는다. ■ 이사도 너무 자주 간다. 활동가가 일할 만하면 떠나는 경우가 많다. ■ 살고 있는 주민 외에도 출퇴근하는 직장인, 상인, 학생 등 구성원이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의견 모이기도 힘들다.	■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 경제적 여유가 많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편하다. ■ ‘일할 수 있는’ 활동가(자원봉사자)가 농촌보다 훨씬 많아서 유리하다. ■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대화와 소통’이 용이하여 가능성이 더 높다.
참여자 의견	■ 도시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도시적 개인주의와 삶의 패턴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한계 있음 ■ 농촌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여 공동체 형성이 어려움 ■ 대화와 소통의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도출과 추진과정에 참여할 의지와 책임감이 약함 ■ 개인이 속한 이익집단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이기 힘든 경향이 있음 ■ 건의는 많지만 이익집단의 욕구와 부딪히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며,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 ■ 관심분야의 다양성과 방대함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주민 모두를 파악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리더가 부재함	■ 농촌은 가구간 거리가 멀고, 동질성은 있지만 폐쇄적이며, 고집이 세고, 계층구조가 남아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최근의 농촌은 공간적으로는 농촌이지만, 주민들은 도시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아 어려움은 도시와 동일함 ■ 도시는 능동적이고 공통의 목적으로 자발적 모임 형성이 가능하나,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며, 남성 중심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비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도시에 비해 더 어려움 ■ 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네트워크 형성이 힘들 수 있지만, 농촌에 비해 기반시설 여건이 더 좋으며,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도시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농촌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으므로 가능성이 더 높음

1) 참가자 중에서 동의와 반대를 거수로 표시한 사람수만 체크하였고, 거수하지 않은 사람은 땀 수치임

쟁점토론 2 “도시농업 활성화(식물공장 등)는 농촌의 농산물 판매를 방해한다”

구분	동의 (1명)	반대 (8명)
기존 의견 (예시)	■ 도시민들이 농산물 구입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어 농촌에 불리하다. ■ 도시민들이 농산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이 말만 많아질 것이다. ■ 이제는 굳이 도농교류 체험을 위해 농촌을 방문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 농민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어 오히려 농산물 판매가 촉진될 것이다.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 도시농민들이 도시농업을 지도하면서 노인 일자리도 늘고 도농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참여자 의견	■ 가격경쟁, 운반비 절감, 기업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농촌보다 도시가 유리하며, 도시농민들의 판매 증가는 기존 농촌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영향을 끼칠 것임 ■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력 습득에는 농촌농민들이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농민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도시농업의 발달은 농촌 기술경쟁력 향상에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임 ⇒ 도시농업과의 강력한 결합 필요 ■ 도시농업이 도농교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농산물 판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반면에 귀농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교육이나 치유농업 등 다양한 목적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쟁점토론 3 “대학생 농활팀이 마을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 없다”

구분	동의 (0명)	반대 (14명)
기존 의견 (예시)	■ 농사에 도움도 안되고 귀찮기만 하다. ■ 예의도 없어 어르신들 민망할 때가 많다. ■ 농촌봉사라면서 사진이나 찍고 낫내기만 하더라. ■ 뒷바라지 한다고 더 힘들어지더라...	■ 외로운데 마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 어려운 농사일도 도와주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 젊은 대학생들에게 농촌 체험이라도 시켜야 미래의 소비자가 될 것이다.

참여자 의견	■ 단순한 방문 또는 노동력의 교류를 넘어서서 문화를 교류하고, 기술을 알려주고 공유할 수 있는 농활로 방식의 개선 필요함	■ 노동력 제공뿐만 아니라 세대 간 교류, 재능기부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서 농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대학생들의 기본 소양 측면에서도 농촌을 알아야 하므로 농촌의 현실과 어려움,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농민들의 땀과 노력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귀농을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필요함
-----------	--	---

쟁점토론 4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농촌 마을에 도움이 된다”

구분	동의 (10명)	반대 (5명)
기존 의견 (예시)	■ 정보통신 발달로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 농산물 판매에 유리해지고 있다. ■ 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 ■ 마을방송도 무선으로 하고, 축사관리도 편해져 농촌 생활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 기업의 또 다른 돈벌이 수단이라 이것도 '돈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도움되고 대부분의 주민들과는 관계없다. ■ 사람들이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더욱 줄어들어 오히려 마을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
참여자 의견	■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기술임이 분명함 - ICT 발달로 농민의 삶에 여유가 생겨서 여가선용 등 공동체 만들기에 도움이 됨 ■ 적은 노동력으로 고소득 기대, 농업 생산량 증대 가능 ⇒ 젊은 사람들의 농촌 유입 가능성 제공 ■ 대부분 생산과 판매라는 1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농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단, 대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필요	■ 투자대비 효율성 한계. 농촌현황이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술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일부 주민에 국한되며, 보조금을 제외하면 시장경제성이 없음 ■ 농민들이 활용 가능한 범위에서 개발이 고려되어야 함(적정기술 - 필요수준에 맞는 기술 개발과 적용) ■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농업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 있음

쟁점토론 5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구분	동의 (7명)	반대 (4명)
기존 의견 (예시)	■ 도시재생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옥상옥’ 조직이 되고 갈등만 심해진다. ■ 아직 역량은 부족해도 권한을 대폭 넘겨주고 훈련할 기회를 줘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성도 약하고 주민자치 역량도 없기 때문에 안된다. ■ 논란만 많아지거나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다. ■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참여자 의견	■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민간(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 공동체형성의 추진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해줄 필요 있음 ■ 읍면단위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의사결정 기관이 되어야 함 ■ 순환보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지역 애착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역할 해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필요함(주민 대표성을 갖춘 분 - 단순히 이장이거나 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공모 등으로 구성원의 변화 필요 - 현재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 한계 있으므로 공개모집이나 역량강화 등으로 개선한다면 지역개발사업 주도 가능

쟁점토론 6 “행정 부서에 총괄하는 지역공동체팀을 신설해야 한다”

구분	동의 (16명)	반대 (2명)
기존 의견 (예시)	■ 도시 마을이나 농촌 마을이나 성격이 유사하기에 한 부서에서 총괄조정해 줘야 한다. ■ 서로 협력하면 장점도 많기 때문에 신설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행자부에서 인력 1명도 증원해준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은 성격이 달라 한 부서에서 총괄 조정 할 수 없다. ■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의 사업이 섞이게 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 행정의 현재 역량으로 볼 때 오히려 ‘옥상옥’ 조직이 되기 쉽고 총괄조정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자 의견	■ 중앙부처의 사업은 구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통합적 구조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인원수를 더 늘려준다면 통합팀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목적이 다르므로 1개의 팀에서 총괄조정하기 어려우며, 효율성에 한계 있음

사진 자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4회차 안내



참가자 자기소개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설립과정과 현황
- 임영수 사무국장(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마을자원조사 경진대회 '대학생이 간다'
- 최우수팀 단국대 '너나들이'



도시형 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협력방안
- 서정민 센터장(지역순환경제센터)



쟁점토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도시마을과 농촌마을의 성격, 관계 등

참석자 명부(1/3)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7년 제 4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참석자명부			2017.05.26(금), 천안	
번호	성함	지역	소속	직책	연락처	전자우편 (작성 선택사항)	서명	관련 행사 문자 안내 신청
1	임영수	천안	천안시공공주택관리사업자	사무국장				☐ 회망 ☐ 거부
2	현제민	천안	"	교육담당				☐ 회망 ☐ 거부
3	김정아	천안	"	가정지원	010-8492-2887	mon9sol@naver.com		☒ 회망 ☐ 거부
4	홍수영	충남	충남지회					☐ 회망 ☐ 거부
5	김재현	천안	천안시강매인정읍사무소	지자체원 행정	010-1112-0332	ayestkth@nate.com		☒ 회망 ☐ 거부
6	이성현	충남	동신로 마은마을기초자치단체	팀장	010-6185-0602	isu0602@gmail.com		☒ 회망 ☐ 거부
7	김동주	천안	서원시 민생경제조사팀	대리	010-4229-2777	tamm822@gmail.com		☐ 회망 ☐ 거부
8	김영희	예산	행동북아를 위한센터	사무국장	010-6420-0015	zumoo921@hanmail.net		☒ 회망 ☐ 거부
9	백두성	예산	"	팀장	010-8011-4460	qotenti103@naver.com		☒ 회망 ☐ 거부
10	박상용	홍성	광천농노노	주무관	010-6426-6063	ps7102@korea.kr		☒ 회망 ☐ 거부
11	박수영	예산	행동북아를 위한센터	연구위원	010-3086-0246	psm7520@nate.com		☒ 회망 ☐ 거부
12	이재성	"	"	"	010-6359-7115	hjs8215@naver.com		☒ 회망 ☐ 거부
13	한재현	천안	충남지회 지역경제조사팀	사무관	010-5455-2800			☐ 회망 ☐ 거부
14	조성민	천안	단국대인문대학지역개발학과	대학생	010-3447-2632	haxod2632@gmail.com		☐ 회망 ☐ 거부
15	전수영	천안	"	"	010-2020-4897	hw20k@hmmil.net		☐ 회망 ☐ 거부

부속록 11 천안시공공주택관리사업자 - 110 4444 8070

참석자 명부(2/3)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7년 제 4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참석자명부			2017.05.26(금), 천안	
번호	성함	지역	소속	직책	연락처	전자우편 (작성 선택사항)	서명	관련 행사 문자 안내 신청 ☐ 희망 ☐ 거부
16	박인숙	천안	진북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생	010-9800-8810	521124@naver.com		☐ 희망 ☐ 거부
17	한 위철	천안	천안시청 기획관리과	보통직	010-8822-4441	h12202@naver.com		☐ 희망 ☐ 거부
18	최은미	천안	충청남도청 기획관리과	공무원	010-9696-3080	mi1501a@naver.com		☐ 희망 ☐ 거부
19	김영철	천안	충청남도청 기획관리과	공무원	010-9886-6312	6broh23@naver.com		☐ 희망 ☐ 거부
20	송경숙	아산	아산시청	담당	010-8111-3149	45586@korea.kr		☐ 희망 ☐ 거부
21	노진호	아산	"	주부단	010-3740-3043	h12965@korea.kr		☐ 희망 ☐ 거부
22	이동주	홍성	충청남도청 기획관리과	공무원	010-9249-9828	ijcountry@naver.com		☐ 희망 ☐ 거부
23	박종성	아산	아산공공하수처리장	연구원	010-8848-6466	juonk88@naver.com		☐ 희망 ☐ 거부
24	김희숙	홍주	충청남도청 기획관리과	"	010-5361-4213	imhuteo@cupdi.net		☐ 희망 ☐ 거부
25	이광우	시천	시천시청	"	010-6619-9313	nmrjpm@hanmail.net		☐ 희망 ☐ 거부
26	유경아	"	"	담당	010-6434-6388	514110@hanmail.net		☐ 희망 ☐ 거부
27	이영희	아산	아산시청	팀장	010-8105-3535	wy45ps@koreadk		☐ 희망 ☐ 거부
28	김정민	아산	아산시청 기획관리과	공무원	010-9236-4447	kmjgm1116@hanmail.net		☐ 희망 ☐ 거부
29	김계숙	"	아산시청 기획관리과	공무원	010-1243-9130	sg569@hanmail.net		☐ 희망 ☐ 거부
30	배미련	아산	아산시청 기획관리과	담당	010-3449-8159	"		☐ 희망 ☐ 거부

31) 김민호 천안 시충청남도청 기획관리과 팀장 010-8127-2064

참석자 명부(3/3)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7년 제 4회 마을만들기 대회마당 참석자명부			2017.05.26(금), 천안	
번호	성함	지역	소속	직책	연락처	전자우편 (작성 선택사항)	서명	관련 행사 문자 안내 신청 ☐ 회망 ☐ 거부
31	김영혜	천안	천안KXC	공동대표	010-4110-3481			☐ 회망 ☐ 거부
32	정석호	공성	충남외로만들기센터	회장	010-3563-3813			☐ 회망 ☐ 거부
33	황 나람	홍성	"	연구단	010-6470-8095	baramforest@gmail.com	황나람	☐ 회망 ☐ 거부
34	누기-인	"	"	연구단				☐ 회망 ☐ 거부
35	이혜리	"	"	공동대표	010-4157-9894	hggms@note.com	이혜리	☐ 회망 ☐ 거부
36								☐ 회망 ☐ 거부
37								☐ 회망 ☐ 거부
38	조재민							☐ 회망 ☐ 거부
39								☐ 회망 ☐ 거부
40								☐ 회망 ☐ 거부
41								☐ 회망 ☐ 거부
42								☐ 회망 ☐ 거부
43								☐ 회망 ☐ 거부
44								☐ 회망 ☐ 거부
45								☐ 회망 ☐ 거부